

현대차 소형 SUV ‘코나’ 직접 타 보니



코나는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지닌 가솔린 1.6 터보 GDI 엔진과 디젤 1.6 엔진 두 가지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기본 적용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했다. 기존 동급 SUV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고급 안전 사양과 편의사양을 갖춘 것도 매력이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실내 넓고, 승차감 묵직하고...소형 SUV 맞습니까?

1.6 가솔린 터보...발군의 주행성능
엔트리 급도 스마트센스 선택 가능
울드한 계기판 디자인 아쉬움 남아



자동차

“가격과 연비는 만족하지만 다소 시끄럽다”, “작은 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다”, “주행 성능 즉 파워가 다소 부족하다”. 기존 경쟁차 유저들이 소형 SUV에 대해 지적인 가장 대표적인 단점들이다.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든 소형 SUV 코나는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했을까. 시승을 통해 그 매력을 경험해봤다. 시승 코스는 여의도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으로 짧은 편이었지만 코나의 장단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가솔린 1.6터보, 펀드라이빙에 최적화

소형 SUV를 선택하는 보통의 남성들이 차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작고 강력한 ‘펀드라이

빙 능력’과 SUV만이 가질 수 있는 적재 공간이다. 도심에서는 즐겁게 타고, 주말엔 여행을하기에 충분한 능력. 코나는 이 니즈를 두루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형 SUV 시승을 위해 차에 오를 때는 대체로 ‘확실히 실내가 좁다’는 느낌을 받는데, 코나는 경쟁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이 느낌이 덜했다. 실내의 가로형 크러시 패드는 전체적으로 계기판과 소재 및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 실내 공간을 넓어보이게 한다. 180cm 가량의 성인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을 것이다. 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승차감은 스티어링휠을 손에 쥐고, 가속페달에 발을 살짝 얹어 출발할 때 곧바로 느낄 수 있다. 차체 거동이 주는 느낌이 경쟁 모델들처럼 너무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법 단단하고 묵직하다. 스티어링휠을 돌리는 감각도 제법 안정감을 준다. 고속 주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예감이 든다.

시내 구간을 빠져나와 강변북로 구간에서 제한속도까지 한 번에 속도를 끌어올렸다. 가속페

달을 깊게 밟았더니 순식간에 제한 속도에 이른다. 중·고속 영역에서 추가로 추월 가속을 할 때보다 부족함이 없다. 펀드라이빙을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1.6 가솔린 터보의 파워에 만족할 것이다. 한계속도까지 밀어붙이고 싶지만, 서킷이 아닌 것이 아쉽다.

기존 경쟁 모델들의 체감 가속 성능이 시속 140km~150km 사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코나는 180k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

시승 모델이 4륜구동을 포함해 모든 안전사양을 갖춘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모델 대비, 기본 성능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느껴진다.

●차체 강성 강화가 고속 주행 안정감에 큰 도움

최고속력 177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가 빛어낸 결과물이다. 고속 영역에서도 차체는 큰 흔들림 없이 안정감이 느껴진다. 차선을 바꾸고 코너에서 속도롤

줄이지 않고 가속페달에 힘을 주게 될 만큼, 기존 소형 SUV들보다 차체를 낮춘 효과는 꽤 높다.

물론 이 안정감의 원인은 강화된 차체 강성에 있다. 코나는 초고장력강과 고장력강의 비율을 동급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차량 구조 간 연결 강성을 높이는 구조용 접착제를 114.5m나 적용해 비틀림 강성을 동급 경쟁차 대비 20% 이상 높였는데 이 효과는 고속 주행시 여실하게 드러난다.

고속 주행시의 로드 노이즈 윈드 노이즈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다. 최고급 세단에 길들여진 유저들이 아니라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대차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와 아이들 소음은 38db, 아이들 부밍 64db, 정속 소음 68db, 로드노이즈 64.7db로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각종 안전 사양도 소형 SUV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준다. 엔트리 모델인 스마트 모델에서도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

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옵션이다. 옵션 가격은 120만원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한 번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은 초보나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다. 순간의 실수로 차선을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역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욕심나는 기능이다. 별도의 글라스(유리) 판에 주행정보를 표시하는 컴바이너(Combine r)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와 속도, 네비게이션 정보는 물론 후측방 정보까지 표시해준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 등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다.

계기판 디자인은 아쉽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를 적용했는데, 엔진회전계와 속도계의 폰트나 글자크기 디자인 등이 전체적으로 울드해 코나의 젊은 감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파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로 오세요

멍멍아! 맘껏 뛰며 스트레스 날려라~

서울의 대표 ‘반려견 놀이터’ 3곳

무료 운영하는 ‘반려견의 해방구’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 구분
3~11월까지...동물등록해야 출입



펫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다. 목줄 없이 다른 반려견과 어울릴 수 있는 반려견들의 해방구, 반려견 놀이터다. 충분히 뛰어놀아야 반려견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짖는 비율도 현저히 감소한다.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 3곳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상암동 월드컵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있다.

●어린이대공원으로 갈까, 월드컵공원으로 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8월에는 밤 9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하며, 우천 등으로 바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개장하지 않는다. 비 온 다음날은 가기 전에 연락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2013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옆 녹지대에 총 747㎡(226평) 규모로 조성됐다. 반려견 다뿔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형견용(459㎡)과 대형견용(288㎡)으로 나뉘져 있으며, 구의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반려견은 놀이터 이외의 공원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올해 재개장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진입로의 야자매트를 새로 교체했다.

2014년 개장한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평화의공원 주차장 옆에 있다. 1638㎡(496평) 규모다. 중·소형견(598㎡)과 대형견(997㎡) 놀이터가 이중 출입문(공용 통로 43㎡)으로 분리

돼 있다. 반려견주 휴게시설인 야외파라솔을 올해 교체했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남단 향기원 옆에 1300㎡(394평) 규모로 2016년 개장했다.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돼 있으며, 대형견이 직선으로 뛸 수 있는 50m 길이의 질주거리도 있다. 올해 재개장하면서 CCTV도 증설했다. 반려견 놀이터 내부에는 음수대, 마킹(반려견 배변)장소, 놀이시설과 견주가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놀이터 전체 방역과 상시 자체 소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반려견 총 6만6462마리와 반려견주 8만1008명이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했다. 이는 일평균 반려견 314마리와 반려견주 384명이 이용한 셈이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반려인과 함께 뛰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반려견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지만, 공공장소이므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반려견의 불발행동이나 배설물 처리 등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제공 | 서울시

어 노는 공공장소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한다. 견주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해 배설물 발생시 수거하고 반려견의 불발행동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놀이터 내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질병감염 의심이 있는 반려견이나 사나운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은 출입할 수 없다. 반려견들끼리 싸움이 없도록 주의관찰해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나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야 하며, 놀이터 내 흡연도 금지된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동물사랑사진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제10회 동물사랑사진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발표한 개념인 ‘One-Health, One-Welfare’를 주제로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과 동물보호 정신을 표현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7월31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공모전 배너를 클릭한 후 응모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을 포함해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30만원), 장려상 10명(상금 10만원)을 뽑는다.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입상작은 9월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 통지한다. 10월28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4회 동물보호 문화축제에서 시상한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구현한 작품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과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문 기자